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기획의도
하나

청렴에 대한 새로운 접근

흔히 청렴이라 하면 공직자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청렴이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습관 같은 것이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한 극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청렴'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기획의도
둘

일상 속의 청렴함에 대한 각인

청렴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다.
권력을 휘두르거나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사회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소한 행위들을 조명하며
'일상 속의 청렴함'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기획의도
셋

청렴이라는 소재가 만드는 극적인 재미와 감동

기본적으로 극이 갖추어야 할 재미와 감동을 확보한다.
소구계층이 주입식 혹은 계도식의 콘텐츠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주인공의 인생을 함께 들여다보며 공감할 수 있는 극을 지향한다.

01. 등장인물

<복레의 가족들>

- 복 레 여 (40대 중반 / 60대 초반)
죽은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청렴함을 삶의 신조로 삼는 우직한 인물.
강단 있는 성격으로 작은 반칙도 허용하지 않고 정도만을 걷는다.
- 석 필 남 (40대 중반)
복레의 남편. 청렴한 공직자였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 미 영 여 (10대 후반 / 30대 중반)
복레의 딸. 똑똑하며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성격이다.
- 유 준 남 (10대 중반 / 30대 초반)
복레의 아들. 착하고 유순한 성격이다.
- 별 이 여 (5세)
복레의 손녀. 유준의 딸. 할머니 복레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복레의 공장사람들>

- 해 정 여 (30대 후반)
복레의 동료. 복레를 믿고 따르며 힘이 되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
- 세 연 여 (30대 중반)
빼어난 미모와 타고난 욕심, 복레를 질투하는 인물.
- 인사부장 남 (40대 후반 / 60대 중반)
복레의 청렴함을 알아봐 주는 우직한 인품의 상사.

그밖에 여직원들, 면접관

02. 시놉시스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 복레의 발걸음이 무겁다.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하게 되었는데, 나이도 많고 상사들에게 인사 선물 한 번 돌린 적 없었던 복레가 인원감축 1순위 대상자로 거론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복레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 동료의 권유대로 좋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례를 하고 입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일까,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고를 당하던 날, 남편의 청렴함을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심란한 복레. 하지만 딸 미영의 지지와 응원으로 몽클함을 느끼며 회사에 출근할 용기를 얻는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 오늘. 하지만 복레는 늘 자청해서 해왔던 휴게실 청소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 모습을 본 해정이 분통을 터뜨리며 복레가 조장에서 내려오게 된 사건을 떠올린다. 탁월한 성실함으로 조장의 자리에 오른 복레를 질투하던 세연이 조장자리를 빼앗기 위해 복레를 음해하고 다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해정과 세연이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 복레는 모든 것이 조장인 자신의 책임이라며 해정과 세연의 징계를 막기 위해 조장 자리에서 내려왔고, 해정은 이렇게 청렴한 복레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드디어 시작된 월례조회. 복레는 담담한 마음으로 인사부장의 공식발표를 기다린다. 그런데, 회사를 떠나게 될 직원들의 명단에서 빠져있는 복레! 해정은 이 사실에 떨 듯이 기뻐하는데, 영문을 모르는 복레는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오늘은 복레의 정년퇴직 날이다. 워낙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기에 정년퇴직 1호가 된 복레. 회사에서 마련해 준다는 정년 퇴임식도 마다하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휴게실 청소로 하루를 시작한다. 인사부장은 복레의 면접날을 떠올리며 옳지 못한 편한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 복레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석필의 기일이다. 미영은 학부모가 보낸 선물을 직접 돌려주고 올 만큼 청렴한 교사로 성장했고, 유준과 손녀 별이는 덜 계산된 물건 값 하나도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복레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자식들이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홀로 남은 복레는 남편을 추억하며 청렴이라는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하고, 늘 복레의 곁을 지켜왔던 남편은 복레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넨다. 따뜻하게 마주보는 두 사람에서 막을 내린다.

제1장. 복례의 집

낮게 내뿜는 복례의 한숨소리와 함께 막이 오르면 복례의 방.
90년대 후반의 가정집, 단출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말해 준다.
복례의 뒤편 탁상에 남편의 사진이 커다란 액자로 세워져 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복례(40대 중반),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한숨만 쉬는데.
교복 차림의 딸 미영(17세)과 아들 유준(15세)이 들어온다.

미영 엄마 안 가? 늦겠어.
복례 (황급히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어어, 가야지.
유준 (해맑게 손 내밀며) 수학여행비.
복례 (그제야 생각난) 어머, 은행 다녀오는 걸 깜빡했네. 미안. 내일 줄게.
유준 (울상이 되는) 오늘 꼭 낸다고 약속했던 말이야…….
미영 야야, 보채지 마. 없는 걸 어찌라고.
유준 이러니까 선생님이나 애들이 날 믿어?
미영 너만 잘해 봐. 왜 안 믿어?
복례 (달래는) 그러지들 마. 엄마가 오늘 중에 학교로 가져다줄게.
유준 진짜?
미영 (의아한) 회산 어찌고? 엄마 회사에서 애네 학교까지 두 시간이야.
복례 어어… (얼굴 어두워지는) 괜찮아. 갈 수 있어.
미영 (이상한 낯새 느끼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복례, 미영의 질문에 대답 못하고 시선 피하는데.
미영과 유준, 심각해지며 복례를 본다.

복례 엄마가, (어려운) 회사를 그만 뒤야 할 것 같아.
미영/유준 (화들짝 놀라는) 뭐?!
복례 회사가 어려워. 일하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데,
 엄마가 나이도 제일 많고… 좀, 그렇잖아.
미영 (표정 변화 없이 복례를 똑바로 본다)
유준 그럼 나 수학여행 못 가?
복례 왜에. 곧 다른 일자리 구할 거야.
유준 얼른 구해 엄마. 나 할 거 진짜 많단 말이야.
 애들이랑 학원도 같이 다니기로 했고, 방학 때 캠프도,
미영 (자르며) 야 김유준! 너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수학여행? 학원? 캠프?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복레 (만류하며) 그러지 마 미영아.
미영 아빤 돌아가시고 엄만 회사에서 잘렸어. 집에 돈 버는 사람 없어.
그게 우리 현실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미영, 일갈하고 나가 버리면. 유준, '누나!' 부르며 따라 나가고.
복레 역시 따라 나가려다, 문득 남편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선다.
긴 한숨으로 사진을 보면, 무대 어두워지며 사진에 조명 들어온다.

복레 여보, 나 어떡해? 우리 애들 어떡하지? (탁상 의자에 앉는다)
당신 그렇게 됐을 때, 당신 친구들이 소개한 자리, 그냥 갈 걸 그랬나?
친구[음성만] 제수씨, 규모도 크고 복지도 좋은 회사예요.
정규채용 시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 번 힘 써 볼게요.
복레 (죄책감 섞인) 내가 잘못된 걸까?
친구[음성만] 대신 인사담당자들한테 사례를 좀 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해요. 못 하는 게 바보죠. 애들 생각만 하세요. 네?
복레 (서글픈) 미영 아빠, 듣고 있어?

사진은 대답이 없다.
복레, 답답한 한숨과 함께 고개 수그리고. 곧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소리 죽여 흐느끼는 복레, 천천히 조명이 꺼지면서.
건너편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면, 남편 석필(40대 중반)이 서 있다.

석필 (화 난) 당신 미쳤어?
복레 (평상복 차림으로 등장하며) 미쳐? 내가?

석필, 복레 앞에 돈 봉투 흔들어 보인다.

석필 이게 뭐야?
복레 (팔짱 끼고 석필 똑바로 보며) 돈. 몰라서 물어?
석필 이런 게 왜 우리 집에 있냐구!
복레 유난 좀 떨지 마. 다들 이렇게 한다잖아!
석필 여보!
복레 (달래듯) 어차피 건축 허가 떨어질 곳이라며.
당신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래.
그냥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 표시 하고 싶어 그러는 거래.
석필 (낭패 본 얼굴로 급히 외투 챙겨 나가면)
복레 어디가?
석필 (멈춰서며) 갖다 주고 와야지.

복레 그걸 왜 도로 갖다 줘?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급히 봉투 뺏으면)
 석필 (돌아보며 한숨)
 복레 (다급한) 이 돈이면 미영이 어학연수 보낼 수 있어.
 똑똑한 애, 부족한 부모 만나 날개 못 펴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석필 (복레 손에 들린 봉투 도로 가져가고)
 복레 아무도 몰라. 절대 말 안 한대. 현금이라 증거도 없고 흔적도 안 남는데.
 당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냐! 이웃끼리 성의 표시 한 거라잖아!
 석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내 자리가 그러면 안 되는 자리잖아.
 어떤 식으로든 사적인 관계가 끼어들면, 일처리도 기울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 당신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 (돌아서 나가면)
 복레 (석필 앞을 가로 막으며) 괜히 굶어 부스럼 만들지 마!
 이거 도로 돌려줬다가 구설수에라도 오르내리면 어떡해?
 당신만 가만있으면 돼. 당신만 눈 감으면 아무 탈 없어. 한 번만, 응?
 석필 (괴로운 얼굴로 복레를 지나쳐 나가려는데)
 복레 혼자서만 청렴한 공직자가 되시겠다? 흥! 웃기고 있어 정말!
 밖에서만 좋은 사람이면 뭐 해? 가족한테 좋은 가장이 돼야지!
 (악에 받히는) 누가 호강시켜주는 남편 바란대?
 애들, 적어도 애들한테 만이라도! 자식 날개 꺾는 가장은 되지 말아야지!
 석필 (그 소리에 멈춰서면)
 복레 추하고 남루한 거 누가 몰라? 내가 처음부터 이랬는줄 알아?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게 어딴어? 난 더 한 것도 할 수 있어!!
 석필 (괴롭게 보다가) 미안해 여보.
 복레 그래서, 그렇게 꼭 막히게 살아서 당신, 회사에선 인정받아?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승진 때마다 번번이 미끄러지고!
 윗사람들한테 인사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수가 틀려?
 누가 알아 주냐고 누가! 못하는 게 바보지!!
 석필 (잠시 고개 숙였다가, 결심한 듯 나가는데)
 복레 늦었어! 비도 오는데 이 밤에 어딜 가? 내일 밝으면 가던가!

석필, 그대로 나가 버린다.

복레, 다 쏟아내고 탈진한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하지만 복레의 마음도 편치 않다.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

복레,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시계의 초침이 과장된 음향으로 크게 들린다.

시계 초침 소리를 뚫고 울리는 전화벨. 복레, 고개를 든다.

불안하게 울리는 전화를 바라보던 복레, 일어나 천천히 받는데.

복레 여보세요? (잠시 듣다가 경악하며 외마디 절규) 여보!! (뛰어 나간다)

현재 시점의 복레가 앉아 있던 자리, 천천히 밝아진다.

복레, 탁상 사진 앞에 앉아 있다.

복레 그때, 내가 그 봉투 받지 않았다면, 당신한테 그런 사고도 없었을까?
 (후회스러운) 이럴 줄 알았으면, 모진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복레, 죽은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때 들어오는 미영. 복레, 급히 얼굴 추스른다.

미영, 눈물 닦는 복레를 봤다. 착잡한 표정으로 멈춰 선다.

미영 괜찮아?
복레 (아닌 척 애써 밝게) 뭐가? 학교 안 갔어? 이러다 진짜 늦겠네.
미영 높은 사람 중에 부탁해 볼 만한 사람, 없어?
복레 (놀라서 보면)
미영 하나도?
복레 (고개 숙이고)
미영 (피식 웃으며) 그래야 문여사지. 이럴 때 보면 엄마랑 아빠, 꼭 닮았다?
복레 미영아.
미영 그래도 좀 서운하네. 새벽 여섯 시에 출근해서 밤 열 시까지.
 버스 두 번씩 갈아타고, 왔다 갔다만 두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혼자 회사 일 다 하는 척 하더니, 제일 먼저 잘리냐?
복레 (보는데)
미영 그 회사가 손해지 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못 알아보고.
 윗사람한테 뻗뻗하다고 성실한 직원 자르는 회사, 나도 싫어.
복레 (고마움과 대견함 섞인) 기지배.
미영 아빠가 항상 우리 지켜보는 거 알지? 아빠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러니까 기죽지 마. 괜찮아.

복레, 몽클한 심정으로 미영을 와락 끌어안는다.

꼭 끌어안은 모녀의 모습에서 천천히 암전.

제2장. 직원 휴게실

작업복 차림의 복레, 텅 빈 휴게실 청소하고 있다.
구석구석 물걸레질 하다가 몸이 아픈 듯, 멈춰서 스트레칭 한다.
어깨며 무릎을 천천히 주무르다가, 가방에서 파스 꺼내 손목에도 하나 붙인다.
복레, 다시 물걸레 잡고 청소하는데, 우르르 출근하는 여직원들.
여직원들, 혼자 청소하는 복레를 발견하고 멈춰서며 서로 눈치 본다.

복레 (발견하고 먼저 밝게 인사하는) 왔어들? 좋은 아침!

여직원들,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는데.
해정(30대 후반), 복레의 물걸레를 억지로 뺏는다.

해정 (심통 난) 뭐라꼬 청소는 합니까?
복레 (물걸레 도로 가져가며) 쥘. 늘상 하던 일인데. (다시 물걸레질 하면)
해정 (울컥하는) 언니! 언니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언니처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콧물 훔쩍이는데)
복레 (물걸레질 하며)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멈춰서 해정 보며) 나 때문에 그럴 거 없어.
해정 복레언니…….
복레 황망하게 남편 보내고 먹고 살 길 막막했는데.
정신 추스르고 살게 해 준 회사야. 이만큼 일하게 해 준 것도 고마워.
내가 학벌이 좋아, 경력이 있어? 나이도 많고.
해정 (훔쩍이며) 인물은 봐 줄만 합니다.
복레 (웃으며 해정의 볼 꼬집는) 우리 해정이 땀에 웃는다 내가.
(둘러보며) 이따 짐 빼고 정리하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하자.
건강하고. 자주 자주 연락하는 거다. 고마웠어, 다들.

여직원들, 숙연해지며 대꾸 없다.
해정, 안타까운 시선으로 복레를 보면.

복레 (씩씩하게 박수 치며) 자자! 일해야지! 다들 얼른 준비해!

여직원들, 그 말에 복레에게 목례하며 하나 둘 씩 나간다.
휴게실에 복레와 해정만 남는다.

해정 무릎 아픈 건 좀 쾌안습니까?
복레 버틸 만 해.
해정 그리고 일하는데 관절이 남아 납니까?
 월급 받아봐야 파스 값도 안 나오지.
복레 (웃으며) 보고 배운 게 이런 거라. 남편이 그랬었거든.
해정 (그 말에 또 울컥하는) 그러게 뭐한다고 조장은 그만 뒀습니까?
 조장만 계속 하고 있었어도…….

해정, 긴 한숨과 함께 멀리 건너편을 본다.
해정의 시선이 닿은 곳이 천천히 밝아지면, 작업복 차림의 여직원들이 모여 있다.
빠어난 미모의 세연(30대 중반), 다리 꼬고 앉아 다소 불량한 태도.
복레, 작업 일지 들고 들어온다.

복레 (직원들에게 공수자세로 인사하며)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여직원들 (합창하듯) 수고 하셨습니다~!
복레 공지 사항이에요. 이번 주말에 특근이 있어요.
 주문이 폭주해서 물량 맞추려면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직원들 (수긍하는 분위기로) 네…….
복레 하나만 더. 다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아는데, 불량에 더 신경 써 주세요.
 품질관리부서 쪽에서 불량 발생과 관련한 클레임이 많네요.
여직원들 알겠습니다.
복레 (작업 일지 보며) 금주 중에 불량 관련해서 서류 작업을 좀 해야 하는데,
세연 (반항적으로 자르며) 그런 건 조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복레와 다른 여직원들, 세연에게 주목한다.

세연 (팔짱끼고 일어나며 턱짓하는) 하는 일이 뭐예요?
 불량 관련한 이슈들까지 조원들이 다 정리하면, 그쪽 할 일이 없잖아요?
 완장 하나 찢다고 너무 날로 드시네.
복레 (차분하게 설명하는) 강세연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왜 불량이 생기는지, 개선해야 할 점이 뭔지,
 작업자들한테 직접 들어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협조해 줘요.
세연 (도전적으로 보며) 내가 왜요?

복레, 말없이 세연을 본다. 두 사람 사이에 감도는 긴장감.
여직원들,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주시하는데.
급히 뛰어 들어오는 해정.

해정 (넉살 좋은) 늦었습니다~ 뒷정리 할 게 좀 남아가지고.

해정, 팽팽하게 날이 선 복레와 세연을 발견한다.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데.

세연 조장이랍시고 꼬박 꼬박 보직 수당 챙겨먹고,
상급자들한테 일은 혼자 다하는 척 생색내면서 동료들만 부러먹고.
해정 (황당한) 뭐라카노?!
세연 친한 사람들 편한테 배치하고 실적 속여서 작성하는 거, 모를 줄 아나?
복레 오해예요. 업무배치는 로테이션이고, 실적 허위로 작성한 적, 없어요.
세연 (비웃는) 인사부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소문도 있던데?
복레 이 봐요.
세연 (주변에 동의 구하며) 이상하지 않아요?
경력도 없는 나이 든 아줌마가 입사한 것부터 좀 수상했는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조장 자리 꿰차고. 믿는 구석 없이 되나, 그게?
해정 (못 참고 끼어드는) 야야! 니 말이면 단 줄 아나?
그거야, 복레언니가 남들 두 배 세 배 일을 하니까 그런 거고!
니가 상급자라도 언니 같은 사람한테 조장 맡기지,
땡땡이나 치고 잔피나 부리는 너 같은 거한테 조장 맡기겠나?
세연 그러니까, 그걸 상급자들이 어떻게 아냐고? 작업장에 CCTV라도 달렸나?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사정도 다 아는 거 아냐?
해정 이기, 말 다했나!!

해정, 순간 옥해서 세연의 머리채를 잡는다.
세연, 죽는다고 비명 지르는데.
여직원들, 우왕좌왕하며 두 사람 뜯어말린다.

복레 (말리며) 그만들 해요! 여기 직장이야!
해정 (안 놓고 버티며) 잘~ 걸렸다! 언제 한 번 손 봐 줄라꼬 기다렸다.
니 조장 되고 싶어서 없는 말 지어내 헛소문 퍼뜨리는 거, 내 다 안다!
세연 이 여자가 미쳤나 정말!
해정 높은 사람들한테 웃음 팔고, 선물 바치고! 여가 술집이?
조장 되고 싶으면 그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해 봐라!
복레 해정아, 그만 해! 놔 얼른!

이때, 인사부장(40대 후반)이 들어온다.
인사부장, 머리채 잡고 싸우는 해정과 세연을 보고 놀라서 소리친다.

인사부장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소리에 해정과 세연, 떨어진다.

복레와 여직원들,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 숙이는데.

인사부장 (복레에게) 문여사님, 지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조장의 책무가 뭔지 모르십니까? 조원들 관리 똑바로 못 해요?!

복레 (꾸벅) 죄송합니다.

인사부장 (해정과 세연 보며) 여사님들, 여기가 애들 놀이터니까?
두 분 다 별점에 감봉처리 각오하세요!

인사부장, 역정 내며 나간다.

복레, 참담한 표정이고. 여직원들, 서로 눈치만 살피는데.

세연 (머리 넘기며) 아이씨! 짜증나 정말!

세연, 박차고 나간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씩 밖으로 나간다.

해정, 여전히 분이 안 풀려 씩씩대고. 복레, 해정의 옷매무새 정리해 준다.

복레 괜찮아?

씩씩대던 해정, 별안간 자지러지게 웃는다.

손에 잡힌 세연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해정, 복레에게 보여주며 배를 잡는다.

복레 (어이없는) 너도 참 너다.

해정 술도 별로 없는 기.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라.

새파랗게 어린 기, 어서 조장 욕심이고?

일을 못해? 누가? 복레언니가? 하이고, 일 못하는 인간 다 죽어뻘나.

복레 어쩔 거야? 인사부장, 깐깐한 사람인데. 별점에 감봉에.

해정 됐심더. 혼자 당하는 것도 아이고.

복레 이번 달에 돈 들어갈 일 많잖아. 애 유치원비에 시어머니 병원비에.

해정 안 그러고 참았음, 내가 못삽니다. 가슴 푹푹해서.

(복레 팔짱 끼며) 순대나 한 접시 사 주이소. 소주 한 잔 하면 더 좋고.

복레, 못 말린다는 표정으로 보는데.

해정, 살갑게 팔짱 끼고 헤~ 웃으며 복레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

현재 시점의 복례와 해정이 있던 자리, 천천히 밝아진다.
복례와 해정, 간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

해정 언니가 왜 조장을 그만 둬니까?
그 여시처럼 명절에 선물 쯤 돌리고 인사도 쯤 하며 그냥 버티지.
그기 뇌물 바쳐 조장 되고 언니를 을매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업무배치 할 때도 제일 고된 일만 언니한테 몰아놓고.

복례 그랬나?

해정 언니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하는 거, 보기 민망했다 아입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 여시 때문에 일 못한다고 소문까지 나고.
파스 붙이고 링겔 맞고 출근해봤자 누가 알아주길 하나…….

복례 일 잘해서 조장 단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회사에서 왕 언니 대접 해 준 거지.

해정 제일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면서 불 끄고.
야근에 특근에 남들이 피하는 일 도맡아 하고. 누가 언니처럼 일합니까?

복례 해정이라도 알아주니 고맙네.

해정 (땅이 꺼질 듯 한숨) 그렇게 몸 바쳐 일했더니, 나이 먹었다고 나가라꼬.
분명 그 여시가 뒤에서 사부작거린 게 분명합니다.

복례 (씹쓸한 미소 짓는데)

해정 복례언니. 그 때, 저 때문에 조장 관둔 거, 다 압니다.

복례 무슨! 그런 거 아냐.

해정 언니가 책임지고 관두는 대신, 별점이랑 감봉 없던 일로 한 거 아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컥하는) 너무 너무 미안합니다.

복례 (다독이며) 내 맘 편하자고 그런 거야. 미안해 할 거 없어, 다 지난 일.

해정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제 어쩔 생각입니까?

복례, 대답 못하는데.
알림 벨소리와 함께 사내 방송 울려 퍼진다.

방송[F] 사내에 계신 직원 분들께 알립니다.
잠시 후, 월례조회가 있을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립니다. 잠시 후 월례조회가 있을 예정이니……. (작아지고)

해정 (벌떡 일어나며) 엄마야! 발표할라나 부다. 우짱니까? 이를 우짱니까?

복례, 심란한 얼굴에서 암전.

제3장. 사내 소강당

작업복 차림의 여직원들, 줄 맞춰 서 있다. 술렁이는 분위기.
가운데 선 복레, 담담한 표정이고. 오히려 해정이 안절부절 못한다.
인사부장이 들어온다. 여직원들의 술렁거림이 멈춘다.

인사부장 (무거운 표정으로 꾸벅 인사하는) 인사부장입니다.
오늘, (어려운)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여직원들, 긴장감으로 쥐 죽은 듯 고요하다.

인사부장 다들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여파로 회사가 어렵습니다.
지난 조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세 분의 직원을 떠나보내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런 결정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복레, 담담하려 애쓰지만 손이 떨린다.
해정이 복레의 손을 꼭 잡아준다.

인사부장 (헛기침 한 후) 회사를 떠나게 될 직원 분들께,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직원들, 그 말에 다시 응성거리기 시작한다.

해정 (소리 죽여) 언니, 미리 연락 받았습니까?
복레 (의외라는 표정으로) 아니? 따로 연락 받은 건 없는데.

복레와 해정, 서로를 보며 의아한 표정.

인사부장 그 동안 애써 주신 직원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뒤쪽에서 세 명의 직원들이 고개 숙인 채 앞으로 나온다.
복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고.
해정 역시 앞으로 나가는 직원들을 보며 어리둥절해 하는데.

인사부장 떠나시기 전에, 동료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고당한 직원들, 나란히 선다.

해고직원1 (고개 숙인 채)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추억 많이 남겼습니다.
모쪼록 다들 건강하세요. (고개 숙여 인사하고)
해고직원2 (애써 밝은 표정으로)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해고직원3 (울먹이는 표정으로 아무 말 못하는)
해정 (안타까운) 아이고, 저러다 올겠다.

해고직원3, 결국 울음이 터진다.
보고 있던 여직원들도 함께 흐느낀다.
인사부장, 착잡한 표정으로 보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면.
여직원들, 해고당한 직원들을 감싸며 눈물의 도가니.
복레도 해고당한 직원들에게 가려는데, 해정이 붙잡아 끌며.

해정 언니! 언니 살았심더.
복레 그러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정 (해고당한 직원들 보며) 딱 보니 알겠네.
맨날 지각하고 불량내고, 일 못하는 아들만 나가는 거 같심니다.
복레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해고 1순위라고 하던데.....
해정 그거야, 그 역시 생각이고! 누가 복레언니 같은 사람을 자릅니꺼?

해정, 새어나오는 웃음 참지 못한다.
울음바다인 여직원들 보며 참으려 애쓰는데, 그래도 계속 웃음 터지고.
복레, 그만 하라며 해정과 토닥거리는 모습에서 암전.

제4장. 직원 휴게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
60대 초반의 복레,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도 늘었다.
작업복 차림으로 여느 때와 같이 텅 빈 휴게실 청소하고 있다.
인사부장(60대 중반)이 들어온다. 그도 많이 늘었다.

인사부장 (반가운 표정으로) 문여사님.
복레 (꾸벅 인사하며) 부장님 오셨어요.
인사부장 (역시 꾸벅 인사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레 고맙습니다.
인사부장 문여사님이 우리 회사 정년퇴직 1호인 거, 아시죠?
복레 (잔잔한 미소 지어 보이고)
인사부장 워낙 힘든 일이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동료들에게 정말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다가) 마지막 날까지 휴게실 청소는 여전히 문여사님 차지네요.
복레 마지막 날이라고 특별할 거 있겠어요.
항상 하던 일, 실수 없이 야무지게 하고 떠나야죠.
인사부장 정년퇴직이 처음이라 정년퇴임식을 열어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었는데,
(친밀하게) 단칼에 거절 하셨더군요.
복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정든 작업복, 다신 입을 일 없을 테니까.
한복입고 올림머리 하고 꽃다발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전.
인사부장 (웃으며) 역시, 문여사님 답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인사부장, 나가려는데.
복레, 인사부장을 부른다.

복레 부장님?
인사부장 (돌아보며) 네.
복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인사부장 (친절한 미소로) 말씀 하세요.
복레 15년 전에, 회사에서 절 받아주신 이유가 늘 궁금했었어요.
나이도 너무 많고, 변변한 학력도 경력도 없고.
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인사부장 문여사님 면접 보시던 날, 기억하십니까?

인사부장, 아득한 시선으로 멀리 건너편을 본다.
인사부장의 시선 닿은 곳이 천천히 밝아지면, 면접관 두 명이 앉아 있다.
40대 중반의 인사부장, 들어와 앉는다.

인사부장 (이력서 살펴보며) 다음 들어오세요.

40대 초반의 복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들어온다.
면접관들에게 꾸벅 인사하는 복례.

인사부장 (권하며) 앉으세요.
복례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른다)
인사부장 올해 마흔 셋... 이시네요.
복례 (자신 없는) 예에.
인사부장 나이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도 못 버티고 그만둘 만큼 강도가 센 업무라서.
복례 (떨면서도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저는 사회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직원들 대부분이 젊은 새댁들이던데.
저는 다른 직원들처럼 남편과의 맞벌이를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집안의 가장으로서 두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인사부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력서 지원 동기를 보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기회를 거절하셨다구요.
복례 (얼굴 붉어지는) 두 아이 뒷바라지 하려면 꼭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에게 사례를 하고 일자리를 얻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먼저 간 남편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인사부장 막상 일을 해 보시면 후회 하실 지도 모릅니다.
일의 강도도, 수입도, 복지도, 먼저 소개받은 회사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복례 상관없습니다. 떳떳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채용공고 소식을 전해 듣고 지원하게 된 거구요.
인사부장 (잠시 보다가 일어나 인사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부장과 함께 앉아 있던 면접관들, 일어나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면.

복례 (어리둥절한) 합격, 한 건가요?

복례, 어리둥절하던 얼굴이 서서히 밝아진다.

복레 (일어나 연신 인사하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레, 나가면서도 계속 인사하고.
면접실 천천히 어두워지며, 현재 시점의 복레와 인사부장이 있던 자리가 밝아진다.
복레(60대 초반)와 인사부장(60대 중반), 종이컵 들고 나란히 앉아 있다.

인사부장 그때 문여사님,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복레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 보내고, 정신이 나가 있었죠.
인사부장 간절해 보였어요. 다른 지원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기가 막힌 인재를 뽑은 거죠!
복레 (웃고)
인사부장 비밀 하나 더 말씀 드릴까요?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문여사님이 인원 감축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복레 (아득한 시선으로) 그럴 것 같았어요.
인사부장 일단 나이가 많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이었죠.
그런데 웬걸요, 작업일지를 살펴보니 힘든 파트만 도맡아 하시고.
그러면서도 바뀐 달라, 힘들다, 불평 불만 한 번 없고.
복레 (쓱스러운 미소)
인사부장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공장 곳곳을 청소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퇴근하면서 전원도 꼭 점검하시고.
정말 큰 실수 할 뻔 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놓쳐선 안 되죠.
복레 (웃으며) 그러셨구나…….
인사부장 청렴하게 근무하시는 모습이 회사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레 청렴이라…….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말씀이세요.
인사부장 아닙니다. 사소한 반칙도 허락하지 않고 욕심 없이 정도를 걷는 모습.
그게 청렴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복레 고맙습니다, 부장님.

인사부장, 일어난다. 복레도 일어난다.
인사부장, 나가려다. 문득 멈춰 선다.

인사부장 (복레를 보며) 문여사님,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복레 (뜻밖의 제안에 놀라는) 네?
인사부장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여사님께서 계속 회사에 남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직원들이 여사님의 청렴함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복레 (감격스러운) 아아, 너무 감사한 제안이라서… 고맙습니다.

인사부장 허락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인사부장, 나간다.

복레, 가슴이 벅차오르는 모습인데.

이제는 중년이 된 해정과 세연, 그리고 여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폭죽 터뜨리고, 꽃다발 건네고, 케이크에 불을 붙이는 동료들.

복레 (만류하며)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해정 언니, 원래 이런 날 이런 걸 하는 겁니까.

해정, 케이크 들고 있는 세연을 툭 밀치면.

세연, 새치름한 표정으로 케이크 들고 복레 앞에 선다.

세연 (깁쟁이처럼) 축하드려요.

복레 (귀엽게 보며) 고마워요 세연씨. (주변 보며) 고마워 다들.

복레, 고마운 시선으로 동료들을 보는데.

해정 초 녹습니다. 자아~ 하나, 둘, 셋!

복레, 케이크의 초를 후- 분다.

해정과 동료 여직원들이 힘차게 박수를 친다.

뿌듯하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복레의 모습에서 안전.

제5장. 복례의 집

1장의 배경이었던 복례의 집, 여전히 단출한 살림살이, 탁상 위에 액자.
복례, 작업복을 벽에 걸고, 작은 소파에 앉아 오래토록 본다.
30대 초반의 아버지가 된 유준이 다섯 살 난 딸 별이와 함께 들어온다.
유준과 별이, 손에 마트 쇼핑백과 영수증을 들고 있다.

별이 (뛰어 들어오며) 할머니~!
복례 (반갑게 맞으며) 오냐, 내 강아지! 잘 다녀왔어?
유준 차 엄청 막혔어요. 그러게 그냥 가만히 있자니까.
복례 (타이르듯) 그러는 거 아니다.
단 돈 백 원을 잘못 계산해도 직원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
하물며 오 만원이나 계산이 잘못 됐는데, 당연히 다시 계산해야지.
(별이 안으며) 우리 별이, 할미 때문에 고생 했지?
별이 아니에요, 할머니! 마트 아주머니께서 계속 고맙다고 하셨어요.
복례 정말?
별이 할머니 완전 멋있어요! (엄지 척! 들어보이며) 우리 할머니 최고!
복례 오냐, 오냐, 내 새끼.

복례, 대견한 표정으로 별이 머리를 쓰다듬는데.
30대 중반의 미영, 오피스룩 차림으로 들어온다.

미영 다녀왔습니다.
별이 (달려가 안기며) 고모!
미영 (별이 끌어안으며 예뻐하는데)
유준 일찍 온다며? (장난스럽게) 일하기 싫어서 늦게 왔지?
미영 (유준 배 툭 치며) 까불기는. 학생네 집에 들렀다 오느라고.
복례 왜, 무슨 일 있어?
미영 학부형 한 분이 백화점 상품권을 기프트콘으로 보내셨잖아.
안 받겠다고 말씀 드려도, 이미 결제 했다면서 막무가내 시더라고.
유준 그래서?
미영 받은 만큼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댁으로 직접 배달했지.
마음만 감사하게 받았다고.
유준 참~ 누나도 누나다. 돌려받은 사람은 얼마나 민망했을 거야?
미영 그러게. 얼굴 빨개지시는데 보는 나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
부끄럽다고, 잊어달라고, 신신당부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 드렸어.

복례 잘 했다. 정도가 아니면 가질 말아야지.
 그게 선생 된 도리가 아니면 뭐겠니.
미영 그럼~ 누구 딸인데. 나 청렴의 대명사 문여사님 딸이거든요?

복례, 미영, 유준, 별이, 다 함께 웃는다.

미영 나 뭐 할까? 늦었으니까 남은 일은 나한테 맡겨.
유준 전도 다 부쳤고, 나물도 다 무쳤고. 아, 잡채 간 좀 봐 주라.
복례 (일어나며) 내가 하마.
미영 무슨 말씀일! 아빠 오셨다가 엄마 고생시킨다고 역정 내시겠다.
 우리한테 맡기시고, 엄마 좀 쉬세요.
유준 그래요, 오늘도 회사 다녀오시느라 피곤 하셨을 텐데.
미영 별아, 고모랑 같이 잡채 만들까?
별이 응! 별이가 할래!

미영, 유준, 별이, 웃으며 나간다.

복례, 흐뭇한 표정으로 보다가, 탁상 위에 놓인 남편 사진에 시선 멎는다.
천천히 일어나 액자를 들고 와 다시 자리에 앉는 복례.
그리운 시선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복례 여보, 보고 있지? 우리 미영이 유준이, 저렇게 잘 컸네.
 애들 큰 만큼, 난 늙었어. 당신은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반대편에 석필(40대 중반)이 등장한다.

석필, 객석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복례와 석필, 시선은 앞을 향한 채 주고받듯 대화를 이어간다.

석필 지금도 예뻐.
복례 솔직히 나, 당신 원망한 적도 많아.
 아픈 무릎 끌고 하루 두 시간씩 버스 여러 번 갈아타가며 출퇴근하고.
 일은 또 얼마나 힘든지. 쌍코피 흘려가면서 운적도 여러 번이야.
석필 그럴 때마다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복례 잘못된 결정이었나? 편한 길 놔두고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당신 친구한테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눈 딱 감고 부탁해 볼까…….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생각 했어.
석필 그래… 그랬을 거야.
복례 그런데 있지, 그럴 때마다 자꾸만 당신 생각이 나는 거야.
 당신이 그랬었잖아. 부패도 청렴도 모두 습관이라고.

석필 기억하고 있었네.

복례 이번 뿐 이라고, 허술하게 마음먹는 순간 습관이 되어 버리는 거라고.
그게 두려웠어. 그래서 더 스스로한테 엄격했었는지 몰라.

석필 당신, 정말 대단해.

복례 장례식장에서 당신 동료들이 애들한테 그러더라.
너희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동료들이 힘들 때마다 앞장 서 돕고,
원리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옳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세상에서 가장 청렴한 분이셨단다.
미영이 유준이, 가난하게 컸지만 그 말이 큰 자부심이 되었을 거야.

석필 부끄럽네. 애들한테 잘 해 준 것도 없는데.

복례 나 혼자 청렴하게 사는 거, 누가 알아주나, 의미 없다 생각 했었는데.
아니었어.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하고 떳떳한 부모의 모습.
그게 당신이 남겨 준 가장 멋진 유산이었어.

석필 그리고 당신이 남겨 줄 유산이기도 하고.

복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석필을 본다.
석필도 고개를 돌려 복례를 본다.

복례 여보, 고마워.
석필 고마워 여보.

복례와 석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잔잔한 음악 흘러나온다. 두 사람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피어난다.
이내 활짝 웃는 얼굴이 된다. 그 모습에서, 천천히 암전.

<끝>